

공포의 블로킹, LIG 달라졌다

현재 블로킹 102개...1R 최하위서 2R 반전
우리카드전 19개·대한항공전 13개로 2연승
김요한·손현중·에드가 등 '절대 높이의 힘'



우리 V리그가 외국 선수의 독무대가 된 이유는 높이의 절대 차이 때문이다. 키 2m가 넘는 거인들이 토종 블로커의 손 위에서 마음 놓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그 절대높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한국배구의 미래는 밝지 않다. 그동안 V리그에서 높이를 상징하는 팀은 현대캐피탈이었다. '스카이워커스' 이름처럼 자유계약시절 장신의 선수를 모두 끌어 모아 상대 팀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탄탄한 블로킹 왕국을 만들었다.

●블로킹으로 2라운드 반전의 계기를 잡은 LIG 손해보험

NH농협 2014~2015 V리그에서 가장 블로킹이 탄탄한 팀은 LIG손해보험이다. 19일 현재 102개의 블로킹을 성공시켰다. 2위 우리카드가 83개인 것에 비교하면 LIG의 위력이 쉽게 드러난다. 1라운드 최하위를 기록했던 LIG는 블로킹을 앞세워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팀에 2연승을 안긴 주역은 2번 레프트 손현중이다. 18일 구미에서 벌어진 대한항공전에서 1세트 중반 투입돼 21-20에서 산체스를 2차례 연속 블로킹으로 잡아냈다. 팽팽하던 경기의 주도권을 빼앗아온 분수령이었다. 손현중은 이날 3개의 블로킹을 성공시켰다. LIG는 2세트에서도 하현용이 19-17, 20-18에서 산체스와 신영수를 블로킹으로 잡아내며 승패를 결정해버렸다. LIG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13개의 블로킹을 성공시키며 세트스코어 3-1로 이겼다. 13일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19개의 블로킹을 성공하며 3-1로 압승했다. 손현중과 에드가는 각각 7개를 기록했다. 요즘 LIG는 되는 집안담게 한 두 명이 블로킹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잘한다.

●LIG의 블로킹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 팀 공격수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LIG 블로킹의 위력은 바로 절대높이에서 나온다. 1번 레프트 김요한(200cm) 2번 레프트 손현중(197cm) 라이트 에드가(212cm) 등이 어느 팀과 견주도 떨어지지 않는다. 최근 주전으로 뛰는 센터 양준식(192cm)도 다른 팀 센터보다 장신이다. 하현용과 정기혁도 7개 구단의 센터 가운데 수준급으로 평가받는 높이와 블로킹 기술을 자랑한다. 어느 포지션에서건 높이가 뒤쳐지지 않는다.

LIG는 그동안 서브리시브와 연결의 문제가 많은 팀으로 지적돼 왔다. 매 시즌마다 그 약점을 고치려고 많은 감독들이 노력을 했지만 단점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았다. 대신 다른 곳에서 길이 나왔다. 수비와 연결은 여전히 떨컬거리지만 높이에서의 장점을 앞세운 블로킹으로 그 단점을 커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손현중의 상승세가 무섭다. 그는 지난해 인하대학교 3학년의 신분으로 드래프트에 나왔다. 당시 인하대는 신인드래프트에 내보낼 졸업반이 한 명도 없었는데 팀 사정에 따라 손현중을 내보낼지 여부를 고민했다. 사전에 몇몇 팀과 의사타진을 한 끝에 손현중을 내보냈다. LIG는 조재영과 정지석(이상 대한항공 선택) 손현중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 높이의 장점을 믿었다. 결국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오고 있다.

이제 대학 4학년인 손현중은 시즌을 앞두고 문용관 감독이 가장 기대를 거는 선수였다. 대학생 신분이라 수업도 빠지지 않아야 하고 여름 중요한 훈련기간에는 교생실습으로 빠져 감독을 애태웠지만 지금 공격과 블로킹으로 큰 보답을 하고 있다. 문용관 감독은 "아직 팀이 들쭉날쭉한 것이 문제지만 우리의 장점은 계속 살리는 방향으로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제 V리그에서 높이의 팀은 LIG손해보험이다.

김종건 전문가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LIG손보가 약점인 서브 리시브를 밀고 블로킹의 팀으로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다. 1번 레프트 김요한(200cm)과 2번 손현중(197cm), 라이트 에드가(212cm)가 센터진과 함께 가공할 만한 높이를 갖췄다. 손현중(왼쪽)이 블로킹에 성공한 뒤 하현용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구미 | 임민환 기자 minani84@donga.com 트위터 @minani84



현대건설 선수들이 19일 화성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 2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한 뒤, 함께 모여 환호하고 있다. 화성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iun

김주하의 수비 헌신...현대건설 2연승

17개 안정적 리시브·9개 디그 성공
폴리 39득점...IBK기업은행에 3-2

2세트 무려 12점(69% 공격성공률)을 뽑았다. 빠른 토스로 데스티니의 위력을 살려낸 김사니가 2세트의 진정한 수훈선수였다.

최근 3연승으로 1위에 오른 IBK기업은행과 3위의 현대건설이 19일 화성 종합실내체육관에서 만났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두 팀의 감독은 서브와 리시브를 또 말했다. 이정철 감독은 "얼마나 서브를 잘 넣고 채선아의 리시브가 김사니에게 얼마나 잘 올라가느냐가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양철호 감독도 "우리 팀의 시즌 모토가 서브와 리시브다. 지난해에는 서브 리시브가 무너지면 대책이 없었지만 올해는 다르다"고 했다. 각 팀은 상대팀의 리베로를 피해서 원 리시브에게 집중적으로 목적타 서브를 넣고 있다. 배구 포메이션 번호 5번 자리다. 채선아와 김주하의 인내와 실수를 잊어버리는 멘탈에서 누가 강한지가 승패의 관건이었다.

●채선아와 김주하 리시브에 운명이 달라지다

1세트 시작하자마자 채선아의 리시브가 흔들렸다. 현대건설이 6-0으로 치고 나갔다. IBK가 데스티니를 앞세워 반격했지만 9-5에서 염혜선이 남지연 채선아를 상대로 연속 에이스를 기록했다. 15-8에서 또 황연주의 에이스가 나왔다. 갑수록 서브가 강해진 현대건설은 19-11에서 폴리의 2연속 에이스로 결정타를 날렸다. 25-15의 승리였다.

2세트 두 팀의 리시브가 탄탄해지자 경기가 팽팽해졌다. 데스티니가 높은 타점으로 공격을 성공시키며 IBK가 세트를 리드했다. IBK는 24-22에서 데스티니의 블로킹으로 세트를 마감했다. 1세트 6득점(40% 공격성공률)에 그쳤던 데스티니는

●매 세트 롤러코스터, 운명은 5세트에 갈라다

3세트 초반 5-4에서 채선아가 서브권을 잡은 상태에서 IBK는 연속 7점을 뽑았다. 박정아가 6-4에서 양효진의 공격을 블로킹으로 막아냈고 렉오펜까지 성공시켰다. 9-4에서는 유희옥의 블로킹이 터졌다. 현대건설의 공격이 갈 곳을 찾지 못했다. 리시브가 흔들리고 범실이 속출하면서 25-8로 허물어졌다. IBK의 블로킹은 5개였다.

4세트 5-3에서 폴리가 블로킹을 성공시키며 트리플클라운을 달성했다. 자신의 시즌 2호였다. 양효진은 8-5에서 3연속 공격을 성공시키며 통산 3000득점을 달성했다. 이번에는 현대건설이 25-11로 압승했다.

세트마다 롤러코스터를 탄 두 팀의 5세트 대결은 15-13 현대건설의 승리로 끝났다. 8-8에서 김주하가 두 번의 기막힌 디그를 하자 폴리가 득점으로 연결했다. 14-12에서 김주하의 서브리시브-염혜선의 토스-폴리의 마무리로 경기를 끝냈다. 폴리가 39득점(4블로킹 5에이스)으로 빛났지만 진정한 수훈선수는 2득점(1에이스)을 한 김주하였다. 27번의 서브 리시브 상황에서 17개를 안정적으로 세터에게 연결하고 9개의 디그를 성공시킨 수비의 헌신이 없었다면 폴리의 공격도 없었다. 2연승의 현대건설은 5승째(2패 승점 13)를 따냈다. IBK는 3패째(5승 승점 15)를 기록했다.

화성 | 김종건 전문가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